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랑

주간 중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중현교회

THE WEEKLY CHŌNGHYUN

발행인:김성환 편집인:노광헌 편집:양재웅

천국일꾼은 소망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저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
(이사야 9:2)



크리스마스 메시지②

미래가 현재를 만들어 준다

(데살로니가전서 3:11~13)

다시 나타나실 하나님의 크신 약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를 내일 날짜로 받은 패스와 같다.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이나 전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단지 장래를 향해 달려갈 뿐이다. (살전 3:11; 막 1:3) 우리들은 매일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권고를 들으면서 살고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실존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다. 이것은 곧 장래가 오늘의 삶을 만들어 주는 인간 삶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눅 3:4~6)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 날에 관하여 관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날이 임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살전 2:19) 그런가하면 '과연 주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확실한가?'라는 의문도 했다. 성경은 어느 한 사람도 살아 본 경험이 없었던 삶을 진정한 삶으로 보여주었다. 약하고 온유함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약속 위에 든든히 서서 서로 사랑하고 여호와께서 이루어주시실 그 장래에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살전 2:12,13)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거로 돌아가서 베들레렘에 임하신 그 불빛을 다시 밝히면서 우리 앞에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릴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약속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마 5:16)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참으로 길고도 길었다. 말기유에 태어나시고 모든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원자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특히 27권의 신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었다. 이 모습은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장차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매일 고민하는 21세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도 같다. 베들레렘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 아니라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은 인간이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삶의 실재를 볼 수 있도록 불을 밝히는 것이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금요찬양집회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이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딤후 1:15) 이제 온 땅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린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귀한 사명이 천국일꾼에게 있습니다. 천국일꾼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회에 천국일꾼 양성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22개 교회교회는 복음에 기초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저한 영적 심사를 거쳐 매년 전후반기에 선발(현재 2007년 하반기 출현장학생 선발중)되는 450여 명의 출현장학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최우선하는 천국일꾼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고전 2:2) 또한 최근 기공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수양관도 천국일꾼을 위함입니다. 이같이 십자가의 정병으로 자라고 있는 천국일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먹잇감을 찾는 사자 (벧전 5:8)같은 악한 영들의 도전 앞에 천국일꾼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일꾼은 소망입니다! (요일 3:3)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빈곤에 의해 파편되어 현재 생존해 있는 21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피파란 형제·자매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기도입니다. (막 9:29) 지금은,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있는 예수님(딤후 2:5)과 함께 21명의 영혼과 그 명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본지 8면 '충현 기도의 창' 참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우리교회의 단기선교를 위해서도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현교회가 여름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른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교회문화로 타락하지 않기를 원한다. (딤후 6:3,4) 이 땅 위에 평화가 전혀 없 것같지 않은데 이러한 크리스마스 찬송을 왜 해마다 부르는가! 예수님이 계신데 그대에도 크리스마스에 어두운 면이 있었고, 인간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도 더 평화스러워지지 않았다. 베들레렘의 두 살 아래 남자아이들은 헤롯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마 2:16) 참으로 이 메시야는 사랑과 빛과 평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인다. 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선지자들처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말씀하셨다. 그 보좌에는 평화의 왕이 앉으신 나라가 있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요 14:2,3, 26)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죽으면 그저 천국 가게 하고, 그 날이 올 때까지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예수 그리스도도는 죄와 심판과 용서와 관제된 분이시다. (롬 4:25)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 사실 자체가 곧 실존적인 인간의 죄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 중에 우리의 눈을 끄는 이야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땅을 사는 행동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평화를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유다는 믿음을 잃어버렸고 갈대아에 의해 정복을 당한다. 이 때 예레미야는 오랜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재산을 통틀어서 땅에 팔게 될 유대의 땅을 산다. 성경은 그가 그 당시의 땅 값을 다 주고 샀다고 기록하였다. (렘 31:31, 32:9) 예레미야는 그 당시 현실에 의해 통치되는 세상 보다는 약속받은 평화의 나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렘 32:41,42) 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용기를 주는 말씀이다. 바울은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약속 안에서 그들의 현실에 큰 변화가 있기를 권하고 있다. (살전 3:12,13)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향하여 아무리 너희가 평화를 외쳐도 이 세상은 변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들은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은 자들이다. 우리 역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 믿음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다. 물질주의, 무감각, 폭력을 통치하여 의가 없는 것에 의를 전하고 중요로 가득 한 곳에 사랑을 전하자.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삶이 역사하도록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금년에도 여김없이 용기를 주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채워주는 말씀과 찬양을 우리의 가슴에 품을 것이다. 기쁨과 넘치는 사랑으로 주님의 나신 줄을 기념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길 주시 그 후, 장래 일을 확신하며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자. 우리의 현실의 삶을 만들어주는 것은 곧 장래에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금년에도 다시 한 번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자. 아멘.

WHY ARE YOU NOT SAVED?

(18) My sorrow is beyond healing, My heart is faint within me!

... (20) "Harvest is past, summer is ended, And we are not saved." (21) For the brokenness of the daughter of my people I am broken; I mourn, dismay has taken hold of me. (22) Is there no balm in Gilead? Is there no physician there? Why then has not the health of the daughter of my people been restored? (Jeremiah 8:18-22)

In this powerful Bible passage, the weeping prophet, Jeremiah, sheds tears over the chosen people, not Gentiles, but God's servants. His heart really cries for God's people. His words proclaim a spiritual principle for today's hard hearts, "Harvest is past, summer is ended, And we are not saved." (v. 20) This revelation is what made Jeremiah mourn. This knowledge brought deep sorrow and disappointment into his heart. I have been proclaiming the gospel to this church for the past ten years. When I came here, most of the people who called themselves Christians did not really know who Jesus Christ is or what the cross is. These Christians knew about worldly wealth, happiness, and success, but they did not know God. Even though they came to church every week to worship, and pray and tithe regularly, they did not know the truth. Right now, right here, I am telling you that your life is coming to an end. Your time on this earth is limited. Tomorrow is promised to no one. Has your soul truly been harvested?

My dear friend, the harvest is almost past. When Jesus looked upon the people of Jerusalem, "He felt compassion for them, because they were distressed and dispirited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Then He said to His disciples,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workers are few.'" (Mt. 9:36&37) There is so little good fruit, real believers, true repentance in the church today. Jeremiah cried out, "Is there no balm in Gilead? Is there no physician there? Why then has not the health of the daughter of my people been restored?" (v. 22) What about us? Is there no Bible in Choong Hyun? Is there no Jesus here? Why then are there so many unsaved members? Ecclesiastes 12:1 says, "Remember also your Creator in the days of your youth, before the evil days come and the years draw near when you will say, 'I have no delight in them.'" Even though you may live the Christian life, if you do not really know Jesus Christ, then your soul is unsaved. Jesus said, "Permit the children to come to Me; do not hinder them; for the kingdom of God belongs to such as these." (Mk. 10:14) This is a critical time. Life is uncertain. Sickness, injury, and death can come at any time. You may have the illusion that you are living a tender and loving life, and that everything is about fellowship and partying, but actually it is a time of turmoil, disaster, depression, war, drugs, drinking, and the like. It is harvest time and you need to make special contact with the reaper, whether through a trusted Christian friend, or the work of the Holy Spirit, or during this service right now. In the final harvest of old age, some respond just in time, during their last breath, but not many. The point is not to allow the harvest time to pass you by.

My dear friend, the time of salvation is right now. Right now is a really good time, not when the harvest is past and the summer is ended. At the end of summer, there is no more time for growing. When harvest time passes, then it is too late. The time to be

saved demands the message of salvation. We are all sinners without exception. There are no special people who do not need salvation, "There is none righteous, not even one; there is none who understands, there is none who seeks for God." (Rom. 3:10&11) Salvation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is mandatory for everyone seeking life, "But now apart from the Law the righteousness of God has been manifested, being witnessed by the law and the Prophets, even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for all those who believe; for there is no distinction." (Rom. 3:21&22) Listen to Romans 5:8,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Amen. This is a great time for salvation, "... that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a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Rom. 10:9) Salvation time is open by the grace of God. There is no excuse for you not to come to Jesus. "Behold, now is the acceptable time, behold, now is the day of salvation." (2 Cor. 6:2) I hope you can see and agree with me that time is running out. The count down has started. Christ is coming!

My dear friend, so many people are not saved at this time. People walking inside and outside of this church are headed straight for eternal hell, not heaven. Jeremiah told God's people, "... And we are not saved." (v. 20) Even now, with the Bible in my hand, I'm telling you clearly and plainly to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Jesus, but your pride still holds on to pleasing yourself, ignoring the cross, and following your own way. Earthly life is great for you and by your own authority it is killing you. The word of God says that we are not saved without denying ourselves, taking our crosses, and following Jesus. Are you hearing this? Jeremiah spoke God's word, his sayings were prophecy, and his tears were the true water of God's servant. Please do not let his cry be heard from your ears from hell later. Do not let it be your cry. Come to Christ before the harvest ends. Maybe today's sermon could be God's final call for you. "Later the other virgins also came, saying, 'Lord, lord, open up for us.' But he answered, 'Truly I say to you, I do not know you.' Be on the alert then, for you do not know the day nor the hour." (Mt. 25:11-13) Only those who are prepared for His coming will enter the kingdom.

A lot of people come to this church with happy faces, saying "hello" and "peace be with you" to everyone they meet, but real God's people are crying. This message is for you and me. Jeremiah cried, "Is the Lord not in Zion? Is her King not within her? Why have they provoked Me with their graven images, with foreign idols?" (v. 19) I am crying out to you, "Is the Lord not in Heaven? Is your King not within you? Why do you continue to refuse God's help? Why are you not saved?"

다음을 주일 설교

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18)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 (20)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21)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22)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 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쩔인고
 (에레미야 8:18~22)



김성관 목사

힘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울고 있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 곧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진심으로 울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오늘날의 강박한 심령을 향해 당시와 동일한 영적인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20절) 이 구원 때문에 에레미야는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얻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과 절망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십 년 동안 천원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해 왔습니다. 처음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십자가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부, 행복, 성공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정기적으로 십일조를 바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아무에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참으로 추수가 되었습니까?

지금 추수가 끝나가는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마 9:36,37) 현대 교회에서 성령의 열매, 진정된 신자, 참된 회개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에레미야는 울부짖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쩔인고" (22절) 우리는 어쩔습니까? 천원교회에 성경 말씀이 없습니까?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전도사 12:1은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막 10:14) 지금은 운명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언제든 질병이나 사고, 죽음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평화롭고 아름다우며 늘 즐거운 교제와 축제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생은 혼란, 재난, 절망, 전쟁, 악물, 알콜 중독 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추수하는 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친구를 통해서건, 혹은 성령의 역사나 지금 드러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늙어서 마지막 추수 때에 다다라서 마지막 숨을 내릴 때까지 우유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조차도 그 때 많지 않습니다. 요점은 추수 때가 여러분 결을 수확치나가고도 내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정말로 복된 시간입니다. 아직 여름이 지나지 않았고 추수기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끝나면 더 이상 성장할 시간이 없습니다. 추수가 지나면 너무 늦습니다. 구원의 때

는 구원의 메시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구원이 필요치 않을 만큼 특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롬 3:10,11) 생명을 구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롬 3:21,22) 로마서 5:8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지금은 놀라운 구원의 시간입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롬 10:9)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데 대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두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지금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아닌 영원한 지옥을 향해 곧장 걸어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20절)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여러분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의 자존심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 십자가를 무시하며 자기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권위가 여러분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구원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말은 예언이었고, 그의 눈물은 하나님의 종이 흘리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그의 울음소리를 나중에 지옥에서 듣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울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추수가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어쩌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계를 잊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가 없지 못하느니라"(마 25:11-13) 오직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얼굴로 교회에 와서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들. 그러나 참 하나님의 백성은 울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는 울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케 하였는지"(19절)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심령에 계시지 않습니까? 왜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거절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 8. 1.)

신자가 알아야 할 것은

(베드로후서 3:18)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 (베포후 3:1) 그는 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힘들지라도 언제 임할지 모르는 재림의 날을 소망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베포후 3:10)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였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이다" (베포후 3:18)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하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한다.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자. 물론 이 삶은 너무 어렵다. 그럴수록 더욱 찬양하며 이 길을 걷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찬 427장) 육신에 속하여 세상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자. (고전 3:1,3) 육신에 속한 자가 될 때 영은 자라지 못한다. 자신의 뜻과 감정에 매이기 때문이다. 신자로서 성숙하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취할 것을 알아야 한다 신자는 자신이 무엇을 취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자신의 정욕대로 세상의 것들을 취할 때 우리는 절대로 성숙할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주 쉽게 세상의 것들을 취한다. 자신의 삶을 돌아켜보자. 어떠한가? 취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지난 아이들같이 순진하고 신성한 것을 사모해야 한다. (베포전 2:2)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기를 힘쓰라" (딤후 2:15)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취하여 살아갈 때 범죄하지 않게 된다. (시 119:11) 말씀 속에 감추어진 오묘한 진리를 깨닫는다. 굳어진 마음이 말씀으로 녹아내려 거듭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 세상의 넓은 길이나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여러분 일 할할 때 나의 말을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 342장) 취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은 신자의 삶은 감사와 평강으로 가득하다. (빌 4:6,7) 신자는 주님의 말씀을 취해야 한다.

다른 자들로부터 취할 것을 알자 신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할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취할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해야 한다. (히 10:25) 복음에서 떠난 모임과 그에 속한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취할 것이 있다. 바로 그들을 위한 기도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 4:11,12) 주님은 각각의 사람들을 말씀하사 주님은 다른 신자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 이처럼 말씀을 취한 신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은총을 취한다.

영적으로 걷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자는 영적으로 걷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적으로 걷는 것'은 성령에 순종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우리의 교만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깨우쳐 돌아보며 겸손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갈 5:16) 성령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걷게 한다. 십자가의 길로 인도한다. 괜히 성령을 근심케 하여 소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엡 4:30; 살전 5:19)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자. 이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 참 생명의 길로 행하게 된다. (롬 6:4)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준 승리의 길이 아닌가! (엡 5:2) 성령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된다. (엡 5:8) 자기를 부인한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진리 동태(찬 276장)가 되어 천국으로 열려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열매를 맺는 자가 되자 보혜로 거듭난 신자는 말씀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할 것도 안다. 자신의 뜻이 아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영적인 길을 걸어야 함도 안다. 이 길에는 열매로 가득하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

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 15:7,8) 열매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안드레는 복음을 듣자마자 전했다. (요 1:41) 이 복음을 들은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뒤에 많은 사람들을 역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행 2:41) 이처럼 열매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열매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데리고 나와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행 6:7)

성숙한 신자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 아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자. 자기를 부인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 길가와 가시덤불이 아닌, 보혈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텃밭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가득할 것이다. 신자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온 땅 열방을 향해 나아가 십자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찬 347장) 아멘.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12교구

12교구는 행정구역으로는 동대문구, 중랑구(면목, 망우동 제외), 성북구에 속한 6개 지역으로, 22개 구역과 6개 남성교회와 7개 전도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구 영성훈련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나로 묶여 주시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교구일꾼과 각 전도교회 구성을 순조롭게 인도하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 16:18)라는 율예의 교회 목표로 부름받은 "영혼을 구하고 키우는 교구, 모이기를 힘쓰는 교구, 사랑과 섬김의 교구." 이 세 가치를 교구 목표로 하려 하셨습니다.

첫째로 영혼을 구하고 키우는 교구가 되기 위하여 태신자를 작정하고 일해야 기도로 준비하였고, 불신자들과 장기결석 성도들은 초청전도집회를 통하여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태신자들이 지속적으로 집회참여로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과 중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일회성이 아닌 연중 사역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구모임 시 새신자 뿐만 아니라 장기결석 성도들을 환영하는 순서를 마련하고 있으며, 새가족양육부를 수료한 태신자들이 교구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단기선교에도 힘을 써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선교 중이거나 준비하는 것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며, 교구 개원 후에는 교구 단독 팀을 파송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구가 되기 위하여 먼저 일꾼들이 순신수행하여 각종 모임에 참석하며,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지역별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연약한 남성구역모임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5개 교구와 22개 교회학교를 연계하여 교구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여 교회방직에 따라 교구 내 유소년과 청년들의 교회학교 참석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랑과 섬김의 교구가 되기 위하여 각종 경조사에 교구 식구들이 적극 참석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연약한 지체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는 가운데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와 연로하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 십자가 복음에 굳게 서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간 교구 화단 가꾸기와 식단 봉사, 교구 찬양을 준비하면서 힘을 합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교구 성도들과 특히 남성도들의 적극적 헌력에 감사드립니다.

교구 모든 일꾼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회개함으로 겸손히 순종하여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본받아 영혼을 구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구 내 온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마 16:24)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살전 1:3) **황의만(성로, 12교구장)**



죄인을 통한 복음의 사역

4, 5, 14교구 연합팀

-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신 영혼들, 특히 청소년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지에 가정교회가 세워져 복음을 받은 영혼들이 잘 양육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정말로 부족한 나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조성환 집사)
- 그렇게 많이 외운 전도언어와 찬양이 왜 생각이 나지 않을까? 팀 기도회를 통해 간절히 기도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복음의 말씀을 대언히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은 바로 나타났다. 나는 이번 선교가 처음이다. 정말 신비롭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아직도 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나 젖어 살고 있는 나조차도 만나 주신 예수님이 정말로 좋다. (권성태 성도)
- 선교 준비중에 병든 나의 팔과 몸을 고침받았다. 이같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는 복을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셨다. 만날 영혼을 준비시켜 주셨고, 여러 가지가 함께 할때 곳에서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을 영접하는 그들 속에 함께 계신 주님께 감사했다. (이현근 집사)
- 준비된 영혼들은 복음을 옥도처럼 받는 젊고 어린 그들임을 사역현장에서 발견할 때, 그 땅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깃든 예비된 하나님의 땅임을 알게 하셨다. 비오듯 흐르는 땅방울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던 그로 영혼한 노망들을, 포박포박 성경을 열어 내려가던 그 음성들을 잊을 수가 없다. (전현진 권사)
- 복음을 잘 받아들이 선교하기가 쉽지는 않기에 격정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관자는 매우 심했다. 어떤 지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쉬웠던 반면, 어떤 지역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박종은 안수집사)



깨어진 교만

총현교회 단기선교가 오직 성령님의 인도에만 의지하여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는 선교이기에 참여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던 중, 2007년 선교방향이 준비된 자라낸 목사님, 장로님 팀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선교위원회의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마치 주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것 같은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부와 교구연합 선교팀이 꾸러졌고, 지도 함께 선교준비를 하였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미 단기선교 경험이 있던 터라 준비에 그다지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준비 과정 속에서 성령님은 저의 교만을 철저히 깨뜨리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선교가 사람의 경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성령님의 역사로 충만한 자에게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팀이 주 안에서 먼저 사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저하게 통치하시며 선교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로서,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동참하기에 팀원들이 부담스러워하던 열려도 있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것도 기쁨으로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 경찰의 위협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때마다 만나와 매추리가 같은 영적 양식의 공급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특히 각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 어눌한 언어와 어색한 분위조차 십자가 복음만을 힘있게 증거할 때 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마을과 가정에서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며 순수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완강히 거부하는 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지기도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며 오히려 회교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주님! 영혼 사랑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의 절절한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장 연합하며 교만하고 언어도 부족하며 미련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땅에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멘.

김길규(목사, 청년1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0개 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8월 6일(월) - 8월 11일(월)	23-11-12-14-22교구 중동부 연합	한흥연	8월 9일(목) - 8월 16일(목)	4-2-6-11교구 청년1부-청년2부 연합	문영규
8월 6일(월) - 8월 15일(수)	11교구	김영록	8월 9일(목) - 8월 17일(금)	2-4-5-11-12-15교구 연합	허만선
8월 7일(화) - 8월 15일(수)	예배다부①	변창대	8월 9일(목) - 8월 17일(금)	함평루아찬양대③	김종녀
8월 7일(화) - 8월 15일(수)	예배다부②	윤영범	8월 10일(금) - 8월 18일(토)	15-2-14교구 연합	이홍기
8월 8일(수) - 8월 16일(목)	7-1-17교구 대학부 연합	박석산	8월 10일(금) - 8월 18일(토)	함평루아찬양대④	문경안

단기선교팀을 위한 선교 특별 새벽기도회

- 목적: 선교팀들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여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임을 떨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이 충만한 인물이 되도록 간구하기 위함.
- 대상: 선교위원회의 일로 된 기도동역자, 모든 성도
- 3.대상선교팀: 56개 팀 (7.20. 파송-19개 팀 / 7.27. 파송-27개 팀 / 8.3. 파송-10개 팀)
- 4.기간: 7.23(월)~8.18(토), 49일간
- 5.일시: 매주 화요일~토요일, 오전 5시 40분~6시(새벽기도회 후), 필요요는 단기선교회 회의 및 기도회로 대체
- 6.장소: 배디나홀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4개 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7월 23일(월) - 7월 31일(화)	13-17교구	조홍연	7월 25일(수) - 8월 2일(목)	2-1-10-대학부 연합	최계열	7월 27일(금) - 8월 3일(금)	7-8교구 연합	박용근	7월 30일(월) - 8월 4일(목)	1-2-8-2구 중동부 연합	양원환
7월 23일(월) - 7월 31일(화)	23-2-6-17-18-24교구-고등부 연합	노은영	7월 25일(수) - 8월 2일(목)	21-3교구 연합	유병수	7월 27일(금) - 8월 3일(금)	8-7-23교구 연합	장병준	7월 30일(월) - 8월 4일(목)	14-18-12구 중동부 연합	김종훈
7월 23일(월) - 7월 31일(화)	4-5-14교구 대학부 연합	정태동	7월 26일(목) - 8월 2일(목)	9-7-21-23-24구 티고 연합	조영근	7월 27일(금) - 8월 4일(목)	10-9교구 연합	김해걸	7월 30일(월) - 8월 4일(목)	14-7-20-24교구 고등부 연합	세종표
7월 24일(화) - 8월 2일(목)	12-11교구 연합	이인용	7월 26일(목) - 8월 2일(목)	12-2-10-112구 티고 연합	김명성	7월 27일(금) - 8월 4일(목)	17교구	남중호	7월 30일(월) - 8월 4일(목)	2-12-19-20교구 중동부 연합	이보신
7월 25일(수) - 8월 2일(목)	1-2-32구 중동부 대학부 연합	윤신환	7월 26일(목) - 8월 3일(금)	6-17교구 대학부 연합	김영주	7월 27일(금) - 8월 4일(목)	함평루아 찬양대②	강미주	7월 30일(월) - 8월 4일(목)	22-10-24교구 중동부 대학부 티고 연합	윤민재
7월 25일(수) - 8월 2일(목)	18-16-19교구 대학부 연합	김홍렬	7월 27일(금) - 8월 3일(금)	62구-대학부-청년1부-청년2부-티고 연합	김현철	7월 28일(토) - 8월 4일(목)	아연 찬양대	이정태			



복음의 잔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 (행 2:47)

이번 수련회는 달랐다

나는 청년2부에서 친교부 임원으로 섬기고 있다. 그래서 늘 그랬듯이 이번 여름수련 회에서도 '특별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하면 더 좋을까?' 고민했고, 그러다 보면 행사 자체로 분주한 수련회가 될 거라는 선입견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는 달랐다. 7월 17일 아침부터 오후까지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점심 식사 때의 친교시간을 제외하고는 온전히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의 시간으로만 진행되어 말씀 가운데 거하며 충분한 섬과 영적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은총의 시간이었다. 이번 수련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세분의 목사님을 통해 증거된 "서로 사랑하자. 입술의 열매, 영적 교사가 되자."라는 주제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우리에게 보석과 같은 말씀으로 전달되었다. 특히, 주제 말씀 중에 "서로 사랑하자"라는 메시지는 지난 번 2차 청지기 훈련에서 받은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새롭게 되새기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청정 식구들이 있다. 늘 청정 식구들을 전도하려 힘쓰지만 정작 그 길은 힘들고 험해서 청정 식구들과 소원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을 미워하지 말고 더욱더 참고 인내하며 사랑해야 함을 깨달았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열매임을 확실히 알았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청정 식구들을 위해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가? 정말 내가 울며 회개하며 교회를 위해 씨를 뿌렸던가?' 십자가를 체험한 나의 언어가 매일의 삶 속에 영혼을 살리는 언어로 표현되었던가? 정말 초라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며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뉘우침이 솟아나왔다. 회개의 기도는 점차 사랑의 기도로, 사랑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도로 점차 변해갔다. 정말 감사한 시간이 아닐 수 없었다. 마지막 전체기도회 시간에는 선교에 대한 간증을 들으며 선교에 대한 도전의 시간이 되었고, 조원들을 위한 침장들의 기도제목을 들으며 청년2부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여름수련회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청년2부가 되기를 소망한다.

윤선미(집사, 청년2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마다 하는 수련회이지만 늘 새로운 은혜를 받는다. 이번 수련회에는 오래 전부터 전도하려고 생각한 친구를 꼭 데리고 가기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친구를 억지로 끌다시피하여 수련회에 데리고 갔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화 찬수도 따라하고 다른 친구들과 대화도 하며 재미있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흥미있게 들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면서 기도제목을 내놓았다. 교회에 그렇게 가기 싫어하던 친구가 어떻게 하루 만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게 되었는지 참 놀라운 일이다.

나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전도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을 변화시키시고, 십자가 위의 강도를 변화시킨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친구의 변화는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었다.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주님께서 이리 부족한 나를 도우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에 황송하고 감사할 뿐이다. "주 예수 복을 전하려 늘 보내주소서." 이번,

박병민(예배다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노력하고 다짐하고 열심을 다해 보지만, 베드로처럼 항상 넘어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있는 내 모습에 많이 실망해 있었다. 나는 도대체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한 중 여름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었고, 소망과 기대는 있었지만 싸늘하게 식어 있는 내 마음은 단순한 다짐으로 쉽게 뜨거워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 수련회 당일,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야 누군가 나에게 해 주었던 말이 떠올랐다.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수련회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주님의 도움이 아니라고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으로, 물에 빠져 살려 달라고 허우적대는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결국 수련회 당일이 되어서야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을 받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수련회 장소인 춘천기도원으로 향할 수 있었다.

말씀을 통해 부여 주신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귀했다. 바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 버리지 않았더라면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찾아와 주셨지만 다시 고기 잡으러 다베랴로 돌아간 베드로, 그 베드로가 바로 나였다. 주님 앞에서 "오직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던 나. 그러나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 방황하며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다베랴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왜? 날 배신했냐"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너는 약소도 못 지키는 그런 존재냐?"라고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가만히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셨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나를 가만히 부르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저지고 매미만 내 영혼을 십자가의 은총으로 품어주셨다. 이 따스한 손길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다. 네가 착해서도 아니다. 내가 너를! 오직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내 삶의 다베랴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리라 기도한다.

유병규(청년1부)

울며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지난 1월에 있었던 겨울수련회에서 저는 울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동안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정말 즐겁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3이라는 압박감과 내리막 길 마음으로 인해 예수님께 복음 선포한 찬양대에 서는 것이 힘들어졌고, 찬양하는 것도 예전만큼 즐겁고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찬양과 기도를 게을리하고 한 주, 한 주 후렸고 드디어 고등학교생으로서의 마지막 여름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기보다는 공부로만 연결되는 생활에서 벗어남을 더 기대하며 기도원으로 향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원에 도착해서 첫 예배를 드리고 조원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낸 후에 드디어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그 동안 사탄의 괴임에 수없이 빠져 온전히 주님께 나오지 못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일어나기 싫은 주일 아침마다 '한 번 정도는 관할잖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찬양대에 서지 않아도 예배만 드리면 돼!'라며 예전 찬양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기도 한 번 안 하면 어때?' 성경 하루 안 보면 어때?'라며 저는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되뇌이며 부흥회가 있던 그 날 밤, 눈을 가득한 그 기도회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낙담한 제가 되지 않게 해 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수련회의 마지막 순서, 부흥회. 이날 저는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언제나 담연히 여겼던 부모님의 소중함과 감사를 느꼈고, 첫날 부흥회 때에 큰소리로 울며 기도하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지만 하던 친구들이 이 날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했고 친구들의 모습에서 저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하년별 기도시간, 저와 제 친구를 위해 눈을 흘려 기도해 주시는 선성생들과 후배들의 목소리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고동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래친 아이이지만 예배를 너무 늦게 만난 저는 부흥회에 적응하는 것도 못했습니다. 겨우 고등학교에 들어와서야 찬양대를 하게 되었고, 기도를 하게 된 것도 그 때였습니다. 거친 말투와 성격, 그리고 여러가지로 부족했던 저를 주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 한 번 더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었고,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께 매일 기도하며 저 자신 겨울수련회가 끝난 후처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아무리 몸이 피곤할지라도 이 믿을 잃지 않고 즐겁게 보혈을 찬양하는 고3이 되고 싶습니다.

김용은(고등부)

새가족양육부 7월 수로자

항상 예수님 먼저!



♥ 역삼동에 사람을 만나러 왔다가 전도하시는 집사님들을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전도를 하셨지만 "저는 불교인"이라며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님들께서는 제게 계속 전화를 하시며 전도를 하셨고, 어느 날 제 마음이 바뀌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정슬)

♥ 친정 식구들의 오랜 기도와 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난 저의 어머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며 평화를 주셨습니다. (표기숙)

♥ 가족들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믿지 않았는데 새가족양육부에서 8개월을 공부하고 수료하면서 갈 충모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늘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기도를 합니다. (배미영)

♥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복음을 알게 되어 기쁘고 주일이면 교회에 가는 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나병순)

♥ 중년교회에 처음 와서 보니 제 마음까지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 불안했지만 새가족양육부에서 와서 말씀을 배우며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분입니다. (홍영옥)

♥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교회생활을 하며 마음의 안정과 기쁨과 사랑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조영원)

♥ 부모님의 인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민예원)

♥ 부모님의 권유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교회생활을 통해 영육의 강건함과 사랑을 알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김승준)

♥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은 일반적인 성인(聖人) 정도로 알았지만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김경운)

♥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분입니다. 교회생활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모든 면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배애리)

♥ 남편의 인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최가 많은 것을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원망보다는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되었습니다. (김연희)

♥ 병원에 있을 때 전도를 받았습니다. 나오기 전까지 저의 상황은 너무 힘들었지만 모든 것이 교리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죄가 많고 부끄럽게 항상 결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김명성)

(편진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1~7)

에베소는 상업과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 이 도시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공식적으로 행하여지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알지 못하는 죄악의 도시 가운데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행 18:18~19:20) 주의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내려졌고 하나님 나라는 전파되었습니다. (행 20:25,32)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약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밋모섬에 있는 사도요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제 2:1) 또한 그 말씀은 오늘 우리를 속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따라 피를 흘릴 정도의 심각한 고통 가운데서 행한 수많은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구별하여 내어쫓은 것과 그들 가운데 들어온 흉악한 이리(행 20:29)인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낼 정도로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더욱이 이러한 일을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낙심하지 않고 견디며 흔들림 없이 부지런히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모든 교회들에게 모범적인 일이었고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장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잃어버린 처음 사람으로 인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 속에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처음 사람은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였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례자인 세례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며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행 19:5,6) 처음 그들의 행위와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들이 십자가에 맞춘 초점이 흐려졌을 때 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2차 청지기 훈련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사랑이 없는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행위는 아무 것도 아니며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었습니다. (고전 13장)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극치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진실 되십니다. 말씀을 따라 회개할 때 교회 속에 갈보리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임하시며 십자가의 처음 사랑이 있는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경준(목사, 16교단)



에베소 교회 (터키)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04	김선경	3	장년1부	김하녀(3)	1311	김인규	25	외선부	김영희(4)
1305	김정현	3	초등부	최윤화(20)	1312	채미숙	16	청년2부	윤수진(16)
1306	김순연	3	유치부	김하녀(3)	1313	현순호	16	유년부	윤수진(16)
1307	비소와	3	외선부	장웅숙(21)	1314	최영만	3	장년3부	
1308	여유나	25	중공	장웅숙(21)	1315	조인수	14	장년2부	조문수(17)
1309	임동현	19	청년1부	오남구(8)	1316	김소미	1	청년2부	김정현(6)
1310	김정현	23	장년1부	이인규(6)					

* 중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교 회 소 식

모임

1. 정기 대회
일 시 : 8월(수), 2부 예배 후
장 소 : 당회실
2. 안수식 8월 월례회(지회별)
일 시 : 6월(월), 새벽기도회 후
장 소 : 갈릴리움

◆ 선교위원회 헌신예배 일 시 : 8월 8일(수) 수요일 예배 시 장 소 : 본 당

총력 교회주변 전도

일 시 : 여전도회 8월 8일(수), 부 예배 후 남전도회 8월 11일(토), 오후 2시
장 소 :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가정집
남전도회 1시(월, 13, 17, 21교구)~301호 2시(월, 14, 18, 22교구)~307호
3시(월, 15, 19, 23교구)~401호 4시(월, 16, 20, 24교구)~407호

2007년 여름 성경학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2:47)

부서	일시	장소	부서	일시	장소
총동무부	8.10(금), 11(토)	총현기도원	총동무부	8.17(금), 18(토)	총현기도원

총현기도원 특목직원 모집

- 1.모집분야 기도원 관리직
(기도원에 상주하면서 영성·이해·경배·운전 등 다양한 업무로 감당할 분)
- 2.자 격 세례교인으로 만 20세 이하 남자
- 3.제출서류 자필서신, 주민등록 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남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 031-766-5425
- 4.서류제출처

2007년도 제4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급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8월 12일 (다음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 개요 (과종물 학습)	교육관	구원론 (영성신학)	교육관		
	2교시 16:00~16:50	기독교 (이성전공 학습)	교육관	교회론 (강 조 목사)	교육관		
8월 19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 개요 (과종물 학습)	교육관	세례론 (최정규 목사)	교육관	유아세례자 (안지현 목사)	교육관
	2교시 16:00~16:4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8월 26일 (주일)		성인 학습·세례식(강연대, 본당) 오후 4시 30분까지 입회자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오후 2시 30분까지 입회자	

이번 주 새배기도회 담당

	6 (월)	7 (화)	8 (수)	9 (목)	10 (금)	11 (토)	12 (주일)
성경교사/기도사	이성진/임무현	유원철/김갑구	김갑구/백종운	황진희/한용택	최성록/유호동	최장진/임태주	김갑구/홍진희
설 교 본 문	전 2:11-11	전 2:12-17	전 2:18-26	전 3:1-11	전 3:12-15	전 3:16-22	전 4:1-12

예배담당 안내 (8/8~8/12)

날짜	예배	설 교	사 회 기 도	찬 양
8/8 수요일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마 21:1-8) 김성관 목사	영생을 권징	내 생애가 가는 길(전도사) / 저 땅에 뭐에 있어 (호산나 찬양대)	
8/8 수요일	주님의 지상명령 : 선교 (마 28:18-20) 여근기 목사	전성령 원용	은 사생 위하여 (실로암 찬양대)	
8/10 금요일	김성관 목사	유원철	예배후찬양 찬양대 / 소프라노 김지희 / 테너 이병진	
8/12 주일 I	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렘 8:18-22) 양대선 목사	최성록 원용	(예배 전 찬양)	
8/12 주일 II	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렘 8:18-22) 류병희 목사	안지현 임무현	여러 해 동안 주 마나 외 / 소프라노 김희숙(임무현 찬양대 합창단)	
8/12 주일 III	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렘 8:18-22) 김성관 목사	김갑구	전 8월 의지 없이서 외 / 배리온 감동 찬양대(합창단) 오케스트라(악장)	
8/12 주일 IV	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렘 8:18-22) 이재영 목사	정종신	은 사생이 감동하시라 외 / 남성찬양대(합창단) 찬양대(호산나)	
8/12 주일 V	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렘 8:18-22) 김갑구 목사	전성령	새 아침이 밝아 오 외 / 본당 성가대(전도사) : 강나호	
8/12 주일 찬양	우리는 목자다 (마 21:9-17) 김성관 목사	윤수인	한용택주 / 실로암 찬양대 / 12교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9:00	본 당
	II 오전 7: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본 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 당
금요일찬양예배	저녁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 당

기도원 집회 안내 (☎ 031-766-5425)

집회	시 간	차 량
최초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찬양	저녁 11:00	금요일찬양회 후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 드리는 주일 8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한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panish,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호
유 아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3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2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507호
중 동 1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01호
중 동 2부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중 동 3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 년 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장 년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장 년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소 망 부	오후 12:15	갈 리 리 홀
사 랑 부	오전 11:00	북지관 지하1층
예배다부	오전 9:00(화) 오후 1:00(성일)	제2교육관 1층
타 학 부	(화) 오전 8:30 오후 6:00 (금) 저녁 7:00(제2교)	선교관 1층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대 니 홀
총현원외이집	주간 10:00	제1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 10:00	총현 복지관
국회국립국립교회	오전 11:00	아 면 홀

8월 총현 기도의 창

- 1 "저로 사랑함"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총현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2 25개 교구와 22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총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 3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4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며,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5 1·1 전도와 매일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역삼동 일대의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 6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하나되며, 예수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 보혈의 은사로 가득하게 하소서.
- 7 피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십자가의 일꾼 되게 하시며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중언 되게 하소서.
- 8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과 총현복지위원회 복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시고, 현재 추진중인 양로원, 수양관, 남공설 시설 및 본당 외벽색채 보수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9 아가리나산 반전에 의해 피택된 21명의 영혼들과 그들을 애가게 기다리는 가족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시고, 모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교회 오시는 길



심 · 기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김은호 (제1교구위원장)
 - 김종구 (제2교구위원장)
 - 김종수 (제3교구위원장)
 - 이종식 (제4교구위원장)
 - 김갑구 (제5교구위원장)
 - 이병환 (제6교구위원장)
 - 이병환 (제7교구위원장)
 - 이병환 (제8교구위원장)
 - 이병환 (제9교구위원장)
 - 이병환 (제10교구위원장)
 - 이병환 (제11교구위원장)
 - 이병환 (제12교구위원장)
 - 이병환 (제13교구위원장)
 - 이병환 (제14교구위원장)
 - 이병환 (제15교구위원장)
 - 이병환 (제16교구위원장)
 - 이병환 (제17교구위원장)
 - 이병환 (제18교구위원장)
 - 이병환 (제19교구위원장)
 - 이병환 (제20교구위원장)
 - 이병환 (제21교구위원장)
 - 이병환 (제22교구위원장)
 - 이병환 (제23교구위원장)
 - 이병환 (제24교구위원장)
 - 이병환 (제25교구위원장)
 - 이병환 (제26교구위원장)
 - 이병환 (제27교구위원장)
 - 이병환 (제28교구위원장)
 - 이병환 (제29교구위원장)
 - 이병환 (제30교구위원장)
- 부목사
- 박기원 (제1교구부목사)
 - 김기원 (제2교구부목사)
 - 하종현 (제3교구부목사)
 - 최정규 (제4교구부목사)
 - 이정현 (제5교구부목사)
 - 김정현 (제6교구부목사)
 - 이정현 (제7교구부목사)
 - 김정현 (제8교구부목사)
 - 이정현 (제9교구부목사)
 - 김정현 (제10교구부목사)
 - 이정현 (제11교구부목사)
 - 김정현 (제12교구부목사)
 - 이정현 (제13교구부목사)
 - 김정현 (제14교구부목사)
 - 이정현 (제15교구부목사)
 - 김정현 (제16교구부목사)
 - 이정현 (제17교구부목사)
 - 김정현 (제18교구부목사)
 - 이정현 (제19교구부목사)
 - 김정현 (제20교구부목사)
 - 이정현 (제21교구부목사)
 - 김정현 (제22교구부목사)
 - 이정현 (제23교구부목사)
 - 김정현 (제24교구부목사)
 - 이정현 (제25교구부목사)
 - 김정현 (제26교구부목사)
 - 이정현 (제27교구부목사)
 - 김정현 (제28교구부목사)
 - 이정현 (제29교구부목사)
 - 김정현 (제30교구부목사)
- 전도사
- 윤인숙 (제1교구전도사)
 - 김인숙 (제2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3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4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5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6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7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8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9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10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11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12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13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14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15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16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17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18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19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20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21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22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23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24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25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26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27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28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29교구전도사)
 - 김정현 (제30교구전도사)